

[왜?] 고려의 승려들은 왜 무신정권에 반대했을까?

저자 (Authors)	김철웅
출처 (Source)	내일을 여는 역사 ,(14), 2003.12, 150-159(10 pages)
발행처 (Publisher)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0643534
APA Style	김철웅 (2003). [왜?] 고려의 승려들은 왜 무신정권에 반대했을까?. <i>내일을 여는 역사</i> (14), 150-159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19/11/09 14:03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고려의 승려들은 왜 무신정권에 반대했을까?

김철웅_단국대 동양학연구소 연구원

“문관文冠을 쓴 자는 비록 서리라도 죽여서 씨를 남기지 말라”

무신들의 외침은 이렇게 단호했다. 의종 24년(1170) 8월, 그 동안 쌓여 왔던 무신들의 불만이 드디어 터졌던 것이다. 그리하여 무신들의 칼날에 무수한 문신들이 죽음을 당했다. 제일 먼저 무신들의 칼날은 임종식, 이복기, 한뇌 등에게 향하였다. 이들은 무신정변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자들이었다. 승선 임종식과 기거주 한뇌 등은 의종의 은총만 믿고 오만하여 무신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여러 사람의 노여움을 샀다. 특히 무신정변이 일어난 당일에 있었던 그들의 행태는 무신들의 분노를 고조시켰다.

의종은 보현원에 행차하여 수박희手搏戲를 하라고 하였다. 의종은 무신들의 불평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후하게 상을 내려 이들을 위로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대장군 이소옹이 수박희를 하다가 이기지 못하고

달아나자, 한뇌는 그의 뺨을 쳐서 뜰 아래로 떨어뜨리고 말했다. 이를 본 왕과 신하들은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고, 임종식, 이복기 등은 이소응을 욕하였다. 이날 밤 정중부, 이고, 이의방 등은 드디어 정변을 일으켰다. 이고가 임종식과 이복기를 죽이자 한뇌는 왕의 침상 아래로 숨었다. 정중부는, “화의 근원인 한뇌가 주상의 곁에 있으니, 내보내 베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다. 그러나 한뇌는 왕의 옷을 붙잡고 나오지 않았다. 이고가 칼을 빼내어 위협하니 할 수 없이 나왔는데 그 즉시 죽임을 당하였다. 이들의 죽음은 문신들의 앞날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고려사절요』는 이날의 현장을 “호종하던 대소 신료와 환관들 모두가 죽임을 당하였는데, 시체가 쌓이기를 산과 같았다”고 표현하였다.

무신정변, 반란, 그리고 민란

무신정변으로 문신을 대신하여 무신들이 권력을 차지했지만 정세는 여전히 불안하였다. 무신정변 이후에도 반란은 계속되어 무신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문신의 반항, 농민·천민의 봉기가 계속 일어났다. 특히 무신 상호간에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분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명종 원년(1171)에 이의방은 이고를 제거하였고, 같은 왕 4년(1174) 12월에는 이의방이 정중부의 아들 정균에게 살해됨으로써 정중부가 단독으로 정권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정중부도 명종 9년(1179)에 장군 경대승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같은 왕 13년(1183) 7월에 경대승이 병사하자 이의민이 집권했지만, 최충헌에게 피살되는 운명을 맞았다(명종 26년, 1196). 최충헌은 전제정치로 무신정권의 안정을 피해 우流·항流·

의궤에 이르는 4대 60여 년간의 최씨정권을 지속시켰다.

이처럼 무신집정자들이 교체되는 혼란 속에서 이들에 반대하는 세력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았다. 정변이 발생하고 3년 후인 명종 3년(1173), 동북면병마사 김보당은 의종의 복위를 외치며 거병하였다. 그의 저항은 실패하고 말았지만, 이것은 무신정권에 대한 문신세력의 반항이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서경유수 조위충이 동북면 지방민의 불만을 이용해 정중부정권 타도를 부르짖으며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역시 진압되었다.

한편, 무신정권이 수립된 뒤에 전국적으로 농민과 천민의 반란이 일어났다. 무신들과 지방관들이 농민들을 압박하고 수탈함으로써 농촌사회가 피폐해지고 유민(流民)이 증가하였다. 민란은 서북면에서 시작되었다. 명종 2년(1172) 6월, 서북면의 창주·성주·철주의 주민들이 수령의 횡포에 반항해 민란을 일으켰다. 이 외에도 서북 지역에서는 서적(西賊)으로 알려진 크고 작은 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들 서적과 더불어 남부지방에서는 남적(南賊)이라 불리는 민란이 발생하였다.

남부지방의 민란은 명종 6년(1176), 공주 명학소(鳴鶴所)에서 망이·망소이가 봉기한 이후 크게 번져 나갔다. 이들은 한때 공주를 함락하고 관군을 무찔렀으나 정부의 회유책으로 항복했다. 그리고 이듬해 다시 봉기해 충청도의 거의 모든 군현을 점령했지만, 무신정권의 토벌군에게 진압되었다.

당시 가장 규모가 컸던 민란은 명종 23년에 시작된 경상도 일대의 남적이었다. 이때 김사미(金沙彌)는 운문(雲門, 지금의 경북 청도)에서, 효심(孝心)은 초전(草田, 지금의 울산)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이들은 공동전선을 펴면서 그 세력을 경상도 전역으로 확장했다. 그러나 이듬해 정부군에게

진압되고 말았다. 이러한 경상도 일대의 민란은 마침내 신종 5년(1202), 경주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의 반란으로 확대되었다. 이때 경주 주민들은 신라의 부흥을 내세우며 운문산과 울진·초전의 반란군과 연합하였는데, 그 기세가 자못 강성하였다. 그러나 최충헌정권의 특별로 이들 역시 평정되고 말았다.

이처럼 무신 간의 권력 쟁탈전이 반복되는 가운데 문신의 반발, 그리고 농민과 천민들의 반란은 전국적이고도 대규모로 일어났다. 이들과 함께 무신정권에 반대했던 또 다른 집단이 있었다.

승려들, 무신정권에 반대해 무기를 들다

무신정권시대에 일어난 반란으로 특히 주목을 끄는 것은 승려들의 반란이다. 전통적으로 사원들은 왕실·문신귀족과 정치·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국왕은 승려를 왕사(王師), 국사(國師)로 삼았으며, 왕실 조상의 명복을 위해 사찰을 지정하여 진전사원(眞殿寺院)이라 하였다. 그리고 문신귀족들은 원당(願堂)이라는 특정한 사찰과 신앙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들 사찰에 대해 경제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처럼 사원세력은 왕실과 문신귀족이 주도하는 지배체제에서 여러 면에서 그 지위가 보장되어 있었으며,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었다. 특히 교종(敎宗)사원은 왕실이나 문신귀족과 결탁이 두드러졌다.

그런데 무신정변 때문에 사원세력에게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불안한 시기가 찾아온 것이다. 승려들의 조직적이고도 대규모적인 움직임

은 명종 4년에 일어났다.

명종 4년(1174) 정월에 귀법사의 중 백여 명이 궁성의 복문을 침범하여 들어와 선유승록宣諭僧錄 언선을 죽였다. 이의방은 천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수십 명의 승려들을 죽였다. 그러나 이의방의 병사들도 죽거나 부상한 자가 많았다. 승려들의 저항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중광사, 홍호사, 귀법사, 홍화사 등의 여러 사찰에서 동원된 2천여 명의 승려들이 궁성의 동문에 집결하였다. 이의방의 군사들이 성문을 닫아 버리자 성 밖의 민가를 불태워서 승인문을 연소시키고 들어와 이의방 형제를 죽이고자 하였다. 이에 이의방은 군사를 동원하여 승려 백여 명을 참살하였다. 이 와중에서 이의방의 군사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의방은 성문을 지키게 하여 승려의 출입을 금지하고, 군사를 보내어 중광사, 홍호사, 귀법사, 용흥사, 묘지사, 북흥사 등의 사찰을 파괴하였다. 이의방은 사찰을 불태우고 재물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들은 돌아가는 도중에 승려들의 반격을 받아 재물을 도로 빼앗겼으며, 죽은 자도 매우 많았다.

이처럼 승려들이 목표로 삼은 것은 이의방이었다. 이들의 저항은 명종 4년에 일어났지만, 전년에 일어난 김보당의 거병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었다. 김보당은 의종의 복위를 위해 거병하였고, 이의방은 무신 정변의 주역 중 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중광사는 의종이 창건한 사찰이었고, 광종에 의해 창건된 귀법사는 왕실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으며 이 사찰 역시 의종의 행차가 잦은 곳이었다. 따라서 이들 사찰의 승려들이 당시 집정자였던 이의방에 대항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결국 이의방은 승려 종감에게 살해되고 말았다.

정중부의 아들 정균鄭筠은 승려 종감을 사주하여 이의방을 참살하

고, 그의 형 이준의와 그 도당을 모두 죽였다. 이때 군사들은 문신들이 승려들을 부추겨서 변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의심하였다. 이렇게 생각한 것은 사원세력과 문신들이 긴밀히 결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군인들의 의혹은 얼마 있지 않아 현실로 드러났다.

명종 8년(1178), 흥왕사興王寺의 승려들이 덕수현 사람과 함께 반란을 일으킬 음모를 꾸미다가 한 승려의 밀고로 실패하였다. 그리고 최충헌이 집권하였던 명종 27년 9월에 흥왕사의 승통 요일과 두경승이 반란을 꾸민다는 투서가 있었다. 흥왕사는 문종이 창건한 사찰로 왕실이나 문신들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이러한 관계는 명종 대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다.

명종의 아우인 충희는 화엄종의 승통으로 흥왕사에 있으면서 정치에 관여하고 있었다. 『고려사절요』는 그러한 사정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명종은 즉위 이래로 지성껏 태후를 섬기고 종친들과도 화목하였다. 태후가 유종乳腫을 앓게 되어 아우인 충희를 불러 시종케 하였다. 충희의 행동이 난잡하여 더러운 소문이 외부까지 떠돌았다. 우사간 최선이 상소하여 충희를 궁궐에서 내보내기를 청하였으나 왕이 대로하여, “사간이 우리 형제를 이간시키는구나” 하였다. 이에 최선을 파면시키니 대간들이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그리하여 신하들이 충희에게 아부하고 뇌물이 공공연히 오갔다.

친형제 사이인 명종과 충희의 긴밀한 관계는 신하의 간언을 무시하는 정도였고, 결국은 뇌물을 받고 정치에도 관여하였다. 그리고 명종

과 충희의 특별한 관계로 볼 때 홍왕사가 국왕과 왕실을 옹호하는 성향이 있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실제로 명종 8년과 27년에 반란의 징후가 포착된 것은 홍왕사가 일관되게 반무신정권의 입장에서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러한 사원세력의 반발은 최충헌이 집권하면서 더욱 노골화되어 갔다.

최충헌을 암살하려는 승려들

신종 5년(1202)에 대구 부인사와 동화사의 승려들이 경주 별초군의 반란에 가담했고, 이듬해 영주 부석사와 대구 부인사의 승려들이 반란을 피하다가 잡혀 귀양을 갔다. 그리고 희종 7년 12월에는 최충헌을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이 사건은 희종의 폐립 시도가 발단이 되었다. 승려들은 희종에 동조하여 최충헌의 암살 음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최충헌의 군사들과 용감하게 싸웠다.

또한 고종 4년(1217)에는 홍왕사를 비롯해 흥원사, 경복사, 왕륜사, 안양사, 수리사 등의 승려들이 반란을 일으켜 최충헌을 죽이려다 실패하였다. 이 일은 전년에 일어난 거란군의 고려 침입과 관련되어 있다.

고종 3년 8월, 거란은 몽고군에게 쫓겨 압록강을 건너 고려에 침입하였다. 12월에 개경까지 압박하자 고려에서는 방위군을 편성하였는데 이에 승려들도 참여케 하였다. 그 승려들이 갑자기 최충헌을 살해하려고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 홍왕사와 왕륜사는 종전에도 최충헌에게 반대하였으나 이때에 이르러 본격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다. 이렇게 승려와 최충헌이 충돌한 직접적인 원인은 최충헌정권이 자주 공

역을 일으켜 여러 사찰을 침탈하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최충헌은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승려들의 반발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래서 종전과는 달리 참혹한 살육으로 철저히 진압하였다.

이처럼 승려들의 반발은 음모설로 그치기도 하였지만, 때로는 실제로 암살을 시도하였고, 결국에는 조직적으로 봉기하였다. 이렇게 승려들이 최충헌정권에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최충헌은 명종, 신종, 희종, 강종, 고종의 5대에 걸쳐 권세를 누렸다. 그중 명종과 희종을 폐립하였는데, 이때마다 승려들의 반대 투쟁이 있었다. 즉 승려들은 왕실의 권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국왕을 폐위하려는 최충헌에 저항하였던 것이다. 이는 왕실과 문신귀족의 비호 속에 지내 왔던 교종사원이 새로운 권력구조를 조성하며 출현한 무신정권에 대해 반기를 든 것이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와 함께 경제적인 억압책을 추진했던 최충헌의 사원정책도 그들의 행동에 영향을 주었다. 최충헌은 정권을 장악하자 「봉사 10조」를 올렸다. 그 중에서 사원세력과 관련된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지금 승려가 왕궁을 배회하고 왕의 침실까지 들어가도 폐하가 불교에 미혹되어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에 승려는 여러 번 일을 청탁하여 임금의 덕을 더럽혔으며, 곡식을 빌려 주고 백성들에게 가혹하게 받아 재산을 늘리니 폐하가 적지 않습니다. 폐하께서는 승려들을 물리치고 궁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곡식으로 재산을 늘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태조 대에는 반드시 산천의 순역(順逆)으로 사찰을 세워 지리를 편안하게 하였는데 후대에 와서 장상(將相)과 승려들이 산천의 길흉을 묻지 않고 사찰

을 세워 원당(願堂)이라 하여 지맥(地脈)을 손상시켜 변란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폐하께서는 비보사찰 외에는 모두 없애소서.

이 내용에 의하면 최충헌은 승려와 사원이 정치·경제적인 문제에 관여하여 일어나는 폐단을 단호히 배격하고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이 주장하면서 승려가 왕실을 배경으로 정치에 관여하는 것, 사원이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 지배층의 사찰 건립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첫 번째 지적은 사원이 왕실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 지적은 사원의 경제적 집중을 억제하여 사원의 경제력을 약화시키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에서 언급한 사원 증설에 대한 방지책은 분명히 무신정권에 반대하는 사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 실제로 최충헌은 그가 지적된 사원의 폐단을 제거하고자 하였다.

명종 26년 5월에 최충헌은 왕자로서 승려가 된 소군(小君)인 흥기, 흥추, 흥규 등이 대궐 안에 있으면서 정치에 관여하였다는 이유로 사원으로 돌려보내게 하였고, 명종이 총애하던 승려 운미와 존도를 궁궐에서 내쫓았다. 그리고 이듬해 9월에는 연담 등 10여 명의 승려를 영남으로 귀양 보내고, 소군 흥기 등을 섬으로 유배 보냈다. 이처럼 최충헌은 왕실이나 국왕과 관련을 맺은 사원세력을 정리했다. 이와 같은 승려와 사원에 대해 탄압은 왕실, 문신귀족, 교종사원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무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권력층 간의 갈등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리하여 최충헌정권은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계를 재편해 나갔다. 이에 따라 사원세력은 최충헌정권에 부응하여야 존재할 수 있었다.

최씨정권, 조계종을 후원하다

무신정권이 성립되고 나서 지방 각지에서 농민·노비 등의 반란이 계속 일어났다. 그리고 왕실 및 문신 귀족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교종사원은 무신정권에 항거하고 나섰다. 그러나 결국은 최씨정권의 후원 아래 조계종曹溪宗의 성립을 보게 되었다.

선종禪宗은 무신정권기에 새로이 조계종이라 이름하면서 중흥을 꾀하였다. 선종은 청정무욕과 수행修行을 주창하였으며, 화두話頭에 의한 깨침을 주장하여 혁신적인 성격을 띠었다. 이와 같은 조계종의 성향은 무신들의 입장과 부합되었다. 따라서 무신정권은 조계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조계종을 크게 떨치게 한 이는 지눌知訥이었다. 그는 당시 사회의 모순과 갈등, 불교계의 타락에 대해 비판하고 자정을 외치며 사회와 신앙의 혁신을 꾀하였다. 이에 교종세력과 대립하던 최씨정권은 그러한 지눌의 수선사를 지원하였다. 지눌은 좌선坐禪을 중심으로 하여 염불과 간경看經도 중요시해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도모하였다. 지눌에 이어 제2대 사주社主인 혜심慧諶 때에는 최씨 무신정권과 더욱 밀착되었다. 최우는 수선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며, 그의 아들 만종과 만전을 혜심에게 출가시켰다.

이렇게 무신정권시대에 성립된 조계종은 이후 크게 발전하였다. 왕족 및 문신귀족과 결탁해 세속화되어 갔던 교종이 무신정권에 조직적으로 반발했던 데 비해, 조계종은 혁신을 내세우며 점차 불교계를 주도해 나갔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최씨 무신정권의 결탁과 후원이라는 사실이 자리잡고 있었다.